

국내 정착단계 네팔 유학생의 일상정보탐색 행태에 관한 연구*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Nepali International Students across Settlement Stages in South Korea

이 영 아 (Young A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4. 결과분석 |
| 2. 선행 연구 | 5. 논 의 |
| 3. 연구 방법 | 6. 결 론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체류 기간이 18개월 이내인 정착단계 네팔 유학생의 일상정보탐색 행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네팔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12부의 응답 자료에 대해 기술통계, 교차분석,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요 정보요구는 학업, 생활, 건강 및 의료 정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요구 주제에 따라 선호 정보원, 정보 획득률, 만족도, 신뢰도에 차이가 있었다. 학업 정보는 정보 획득률, 만족도, 신뢰도 모두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취업 및 금융 정보는 세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SNS를 더 빈번하게 활용하였으며, 일부 주제에 대한 일상정보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체류 기간이 긴 집단은 취업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는 네팔 유학생의 언어적 특성과 생성형 AI를 포함한 정보원 활용 양상을 살펴보고, 유학생 정보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Nepali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settlement stage who have resided in South Korea for 18 months or les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Nepali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at a university in South Korea, and 112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ross-tabulation analysis, t-tests,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he results showed that academic information was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information need, followed by daily living information and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Preferred information sources, information acquisition rates, satisfaction, and trust varied across information-need topics. Academic information showed the highest levels of information acquisition, satisfaction, and trust, whereas employment and financial information showed relatively lower levels across all three indicators. Female students used social media more frequently than male students and reported higher levels of satisfaction with everyday life information across several topics. Students with longer residence periods showed relatively higher satisfaction with employment inform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Nepali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use of information sources, including generative AI,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improving information support servic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키워드: 일상정보탐색 행태, 정착단계, 정보요구, 정보원, 네팔 유학생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ELIS), Settlement Stage, Information Needs, Information Sources, Nepali International Student

* 이 논문은 서울기독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기독대학교 AI빅데이터융합학과 조교수

(information0824@gmail.com / ISNI 0000 0005 2892 4237)

논문접수일자: 2026년 7월 21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8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8월 17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3): 465-483,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3.465>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2026) 통계에 따르면, 국내 학위과정(D-2) 유학생 수는 2022년 5월 12만 1,139명에서 2026년 5월 24만 280명으로 약 2배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네팔 유학생은 같은 기간 2,510명에서 1만 9,499명으로 약 7.8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학위과정 유학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에서 8.1%로 크게 확대되었다. 2026년 5월 기준 국적별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중국(70,535명), 베트남(65,109명), 우즈베키스탄(20,450명)에 이어 네팔(19,499명)이 네 번째로 많아, 국내 네팔 유학생의 증가가 특히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Savolainen(1995)에 따르면, 일상생활정보탐색(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ELIS)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삶의 방식(way of life)을 유지하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조절(mastery of life)해 나가는 실천적 행위이다. 특히 유학생에게 일상생활정보탐색은 낯선 국내 환경에 적응하고 학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은경 외, 2023). 영어 중심의 네팔 교육과정 특성상 국내 네팔 유학생은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과 학업 수행에 원활하게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아, 2026). 반면, 한국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정보환경에서는 다른 국적의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한계로 인해 정보 접근에 실질적인 제약을 겪는다(정은경 외, 2023). 이에 따라 이들은 검색엔진, SNS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새로운 정보원으로 적극 수용하여 탐색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정보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업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취업, 의료, 금융, 여가 등 일상생활 전반의 정보탐색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외국인 유학생 전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네팔 유학생의 일상정보탐색 행태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한편, 생성형 AI 관련 연구는 주로 학술적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네팔 유학생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비롯한 정보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획득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체류기간이 18개월 이내인 정착단계 네팔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보요구, 정보원 이용, 정보획득, 만족도, 신뢰도 및 정보탐색 장애요인을 중심으로 일상정보탐색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착단계 네팔 유학생의 일상정보탐색 행태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둘째, 정착단계 네팔 유학생의 정보요구 주제에 따라 일상정보탐색 행태는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셋째, 정착단계 네팔 유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일상정보탐색 행태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선행 연구

2.1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정보탐색 행태

외국인 유학생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요구를 경험한다. Oh와 Butler (2016; 2019)는 외국인 유학생이 정착 초기의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높은 불확실성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Oh et al.(2014)은 이 시기에 건강과 주거 등 생존과 관련된 정보가 여가 정보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정보탐색 과정에서는 현지 언어와 낯선 사회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에서도 언어적 제약은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과 정보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윤희 외(2022)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김나현(2023)은 이공계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주요 어려움이 한국어 능력 부족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언어적 제약이 내국인 학생 및 연구자와의 의사소통과 학문적 교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윤정원(2022)의 연구에서도 언어 문제가 가장 큰 정보탐색 장애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사회 시스템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점 역시 정보탐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필요한 정보가 한국어로만 제공되거나 영어로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정보 접근에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Hertzum과 Hyldegård (2019)는 덴마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에는 영어를 사용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덴마크어가 요구되는 이중적 언어환경으로 인해 정보탐색의 제약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요구는 학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다수의 선행연구(윤정원, 2022; 정은경 외, 2023; Chung & Yoon, 2015; Sin & Kim, 2013; Yoon & Chung, 2017)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뿐만 아니라 금융, 건강, 주거, 쇼핑, 음식·외식, 교통, 오락, 문화, 법률, 진로 및 인간관계 등 다양한 일상정보요구가 확인되었다. 특히 윤정원(2022)은 입국 전, 초기 정착, 현재의 모든 정착 단계에서 일상생활 관련 정보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관련 정보요구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2.2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원 이용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탐색은 디지털, 모바일 정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hung과 Yoon(2015)은 유학생이 검색엔진과 인적 정보원 등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며, 정보요구에 따라 정보원과 디지털 기기의 선택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은경 외(2023)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과 검색엔진의 활용이 높았으며, 정보요구 주제에 따라 검색엔진과 모바일 앱의 이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Sin과 Kim(2013)은 다수의 유학생이 일상정보탐색을 위해 SNS를 빈번하게 이용하며, SNS 이용이 많을수록 이를 통해 획득한 일상생활정보를 유용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Bukhari et al.(2018)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대면 소통이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되며, 이 가운데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생성형 AI가 유학생의 정보탐색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보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Ma et al.(2025)은 중국 내 3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329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과 사회문화적 적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 이용이 사회문화적 적응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밝혔으며, 이는 생성형 AI가 정보제공을 넘어 유학생의 새로운 문화와 일상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Lund et al.(2026)은 검색엔진이 여전히 대학생의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생성형 AI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학생보다 학업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더 빈번하게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영아(2026)는 네팔 유학생이 생성형 AI를 학습, 과제 수행, 아이디어 생성 등 다양한 학술 활동에 활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생성형 AI의 유용성을 높게 인식하는 동시에 정보의 신뢰성, 연구 윤리,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탐색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는 주로 학업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양상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3. 연구 방법

3.1 조사 방법 및 내용

국내 정착단계 네팔 유학생들의 일상정보탐색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정은경 외(2023)와 윤정원(2022) 등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설문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일상정보탐색의 일반적 특성, 주요 정보원, 정보탐색 결과 및 평가, 정보탐색 장벽으로 구성하였고, 세부 설문 문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설문에 포함된 정보요구 주제는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행태를 분석한 기존 연구(윤정원, 2022; 정은경 외, 2023; Chung & Yoon, 2015; Oh & Butler, 2019; Sin & Kim, 2013; 2018)에서 제시한 분류 항목을 바탕으로 의미상 유사한 세부 항목을 통합하고, 국내 유학생의 생활 및 정보환경을 고려하여 명칭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건강 및 의료 정보, 학업 정보, 생활 정보,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 금융 및 은행 정보, 대인관계 및 교류 정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정보, 취미 및 여가 정보, 뉴스 및 시사 정보의 총 9개의 정보요구 주제를 구성하였다.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25년 12월 5일 국내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네팔 국적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해당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개설된 전공은 AI경영전공과 AI빅데이터융합전공이며, 본 연구에서는 두 전공의 재학생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두 전공은 AI 분야의 신설 전공으로, 조사 당시 재학생은 1학기부터 3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3학기 재학생이 가장 먼저 입학한 집단이었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는 모두

〈표 1〉 설문 문항 구성

구분	세부 내용	척도	관련 연구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나이, 성별, 결혼 여부, 한국체류기간, 학기, 전공	명목	
2. 일상정보탐색의 일반적 특성	일상정보탐색 빈도	빈도형 서열척도	윤정원(2022), 정은경 외(2023), Oh & Butler(2019)
	일상정보탐색 언어	복수응답	
	주요 일상정보탐색 기기	복수응답	
	최근 3개월간 탐색한 주요 정보요구	순위형 복수응답	
3. 주요 정보원	정보요구 주제별 주요 정보원	순위형 복수응답	윤정원(2022), 정은경 외(2023), Chung & Yoon(2015), Oh & Butler(2019), Sin & Kim(2013)
	정보요구 주제별 정보원 선택의 주된 이유	순위형 복수응답	
4. 정보탐색 결과 및 평가	정보요구 주제별 정보획득 여부	복수응답	윤정원(2022), 정은경 외(2023), Chung & Yoon(2015), Sin & Kim(2013)
	정보요구 주제별 획득한 정보에 대한 만족도	리커트 5점	
	정보요구 주제별 획득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	리커트 5점	
5. 정보탐색 장벽	정보요구 주제별 정보탐색 장애 요인	명목	윤정원(2022)

한국체류기간이 18개월 이내인 정착단계의 네팔 유학생에 해당하였다. 설문 문항은 영어로 작성하였으며, Google Forms를 활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총 114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분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2부를 제외한 112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는 엑셀 파일로 추출한 뒤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에서 제시한 설문 문항 구성 중 순위별 복수응답 척도의 경우, 응답자가 기재한 순위(1, 2,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점수를 산출함으로써, 각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text{가중점수} = (1\text{순위 선택횟수} \times 3\text{점}) + (2\text{순위 선택횟수} \times 2\text{점}) + (3\text{순위 선택횟수} \times 1\text{점})$$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일상정보탐색의 일반적 특성, 정보요구 주제별 주요 정보원, 정보요구 주제별 정보탐색 결과 및 평가, 정보요구 주제별 정보탐색 장애 요인을 분석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일상정보탐색 행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네팔 유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응답자 중 남성은 54명(48.2%), 여성은 58명(51.8%)으로, 성별 분포는 비교적 균형 있게 나타났다. 연령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54	48.2
	여자	58	51.8
나이	18세~19세	14	12.5
	20세~21세	61	54.5
	22세~23세	36	32.1
	24세~25세	1	0.9
결혼 여부	미혼	107	95.5
	기타	5	4.5
한국체류기간	6개월 이내	33	29.5
	7개월~12개월	32	28.6
	13개월~18개월	47	42.0
학기	1	34	30.4
	2	29	25.9
	3	49	43.8
전공	AI경영전공	82	73.2
	AI빅데이터융합전공	30	26.8
계		112	100

은 20세~21세가 61명(54.5%), 22세~23세가 36명(32.1%), 18세~19세가 14명(12.5%), 24세~25세가 1명(0.9%)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107명(95.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기타는 5명(4.5%)으로 나타났다. 한국체류기간은 13개월~18개월이 47명(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이내가 33명(29.5%), 7개월~12개월이 32명(28.6%)으로 확인되었다. 학기별로는 3학기 재학생이 49명(43.8%), 1학기 재학생이 34명(30.4%), 2학기 재학생이 29명(25.9%)으로 집계되었다. 전공별로는 AI경영전공이 82명(73.2%), AI빅데이터융합전공이 30명(26.8%)으로 확인되었다.

4.2 일상정보탐색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상정보탐색 빈도, 정보탐색 시 사

용 언어 및 주요 이용 기기는 〈표 3〉과 같다. 정보탐색 빈도는 일 2회 이상이 43명(38.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 5회~7회와 주 2회~4회가 각각 29명(25.9%)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0.2%가 최소 주 2회 이상 일상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탐색에 사용하는 언어(복수응답)는 영어가 98건(74.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네덜어 18건(13.7%), 한국어 15건(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음에도 일상정보탐색 과정에서 체류국 언어인 한국어나 모국어인 네덜어보다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정보탐색 기기(복수응답)는 스마트폰이 108건(74.4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노트북 33건(22.76%), 태블릿 3건(2.07%), 데스크톱 1건(0.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3〉 정보탐색 빈도, 언어, 주요 기기

측정 변인	세부 항목	빈도	비율(%)
정보탐색 빈도	일 2회 이상	43	38.4
	주 5회~7회	29	25.9
	주 2회~4회	29	25.9
	주 1회	8	7.1
	월 1회 이하	3	2.7
	계	112	100
정보탐색 언어(복수응답)	영어	98	74.8
	네팔어	18	13.7
	한국어	15	11.5
	계	131	100
주요 정보탐색 기기(복수응답)	스마트폰	108	74.48
	노트북	33	22.76
	태블릿	3	2.07
	데스크톱	1	0.69
	계	145	100

응답자들의 일상정보탐색이 주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3개월간 네팔 유학생의 주요 정보요구 주제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가 선택한 상위 3개 주제에 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학업 정보의 가중점수가 1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 정보는 106점, 건강 및 의료 정보는

96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정보는 89점,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는 86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금융 및 은행 정보는 36점, 대인관계 및 교류 정보는 17점, 취미 및 여가 정보는 16점, 뉴스 및 시사 정보는 7점의 순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응답자들의 최근 정보요구는 취미나 교류 등의 부수적인 영역보다는, 유학생이라는 특성상 학업

〈표 4〉 최근 3개월간 주요 정보요구 주제별 가중점수

측정 변인	세부 항목	가중점수
주요 정보요구 주제	학업 정보	124
	생활 정보	106
	건강 및 의료 정보	96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정보	89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	86
	금융 및 은행 정보	36
	대인관계 및 교류 정보	17
	취미 및 여가 정보	16
	뉴스 및 시사 정보	7

수행이라는 핵심 목적과 타문화권 체류에 필수적인 생활 및 건강 등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4.3 정보요구 주제별 주요 정보원 및 정보원 선택 이유

네 팔 유학생들의 정보요구 주제별 상위 3대 정보원과 가중점수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정보요구 주제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원에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 정보, 건강 및 의료 정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정보, 생활 정보와 같은 유학 생활의 적응과 학습에 직결된 4개 영역에서 생성형 AI가 모두 1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생성형 AI는 학업 정보에서 188점, 건강 및 의료 정보에서 174점으로 높은 가중점수를 보여, 맞춤형 설명이나 복합적인 질의응답이 요구되는 정보탐색에서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 금융 및 은행 정보, 대인관계 및 교류 정보, 뉴스 및 시사 정보에서는 모바일 앱이 1순위 정보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와 대인관계 및 교류 정보에서는 가

족 및 지인이 2순위를 차지하였다. 취미 및 여가 정보에서는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대부분의 다른 정보요구 영역에서도 유튜브가 2위~3위권에 고르게 분포하여 유학생들의 일상정보탐색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요구 주제별 정보원 선택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대인관계 및 교류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편리성이 정보원 선택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 및 의료 정보에서 37.5%로 가장 높았으며, 학업 정보 35.7%, 금융 및 은행 정보 32.1%, 뉴스 및 시사 정보와 생활 정보가 각각 29.5%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대인관계 및 교류 정보에서는 친숙성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나, 관계 형성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익숙한 정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에서는 대중성이 21.4%로 두 번째 선택 요인으로 나타나, 다수의 이용자가 활용하는 정보원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정보요구 주제별 상위 3대 정보원

구분	1순위 정보원(가중점수)	2순위 정보원(가중점수)	3순위 정보원(가중점수)
건강 및 의료 정보	생성형 AI(174점)	유튜브(107점)	모바일 앱(99점)
학업 정보	생성형 AI(188점)	모바일 앱(107점)	유튜브(96점)
생활 정보	생성형 AI(132점)	모바일 앱(112점)	유튜브(96점)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	모바일 앱(144점)	가족 및 지인(92점)	생성형 AI(85점)
금융 및 은행 정보	모바일 앱(129점)	생성형 AI(116점)	유튜브(77점)
대인관계 및 교류 정보	모바일 앱(143점)	가족 및 지인(109점)	생성형 AI(84점)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정보	생성형 AI(159점)	모바일 앱(119점)	유튜브(105점)
취미 및 여가 정보	유튜브(120점)	모바일 앱(117점)	생성형 AI(98점)
뉴스 및 시사 정보	모바일 앱(115점)	생성형 AI(111점)	유튜브(105점)

〈표 6〉 정보요구 주제별 정보원 선택 이유

구분	편리성		친숙성		신뢰성		다양성		전문성		대중성		최신성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건강 및 의료 정보	42	37.5	28	25.0	16	14.3	7	6.2	7	6.2	7	6.2	4	3.6
학업 정보	40	35.7	15	13.4	20	17.9	14	12.5	10	8.9	10	8.9	3	2.7
생활 정보	33	29.5	29	25.9	25	22.3	11	9.8	4	3.6	9	8.0	1	0.9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	30	26.8	13	11.6	16	14.3	14	12.5	10	8.9	24	21.4	4	3.6
금융 및 은행 정보	36	32.1	17	15.2	26	23.2	16	14.3	3	2.7	10	8.9	3	2.7
대인관계 및 교류 정보	30	26.8	35	31.2	19	17.0	9	8.0	5	4.5	11	9.8	3	2.7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정보	31	27.7	22	19.6	17	15.2	10	8.9	12	10.7	16	14.3	4	3.6
취미 및 여가 정보	32	28.6	26	23.2	19	17.0	14	12.5	6	5.4	14	12.5	1	0.9
뉴스 및 시사 정보	33	29.5	16	14.3	19	17.0	15	13.4	9	8.0	15	13.4	5	4.5

4.4 정보요구 주제별 정보탐색 결과, 만족도 및 신뢰도

정보요구 주제별 탐색 결과, 만족도 및 신뢰도는 〈표 7〉과 같다. 정보탐색을 통한 정보 획득률은 학업 정보가 92.0%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 정보가 83.0%, 건강 및 의료 정보가 78.6%, 뉴스 및 시사 정보가 75.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 정보는 정보 획득률뿐만 아니라 만족도와 신뢰도에서도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49.5%, 신뢰도에서는 ‘매우 신뢰함’과 ‘신뢰함’을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51.4%로 확인되었다. 반면,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와 금융 및 은행 정보의 정보 획득률은 각각 55.4%와 54.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긍정적 응답 비율도 만족도에서 각각 25.0%와 26.2%, 신뢰도에서 각각 24.3%와 24.5%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영역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획득한 정보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도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한편, 건강 및 의료 정보는 정보 획득률이

78.6%로 비교적 높았으나, 긍정적 응답 비율은 만족도 34.3%, 신뢰도 32.0%에 그쳤다. 이는 건강 및 의료 정보와 같이 전문적인 정보의 경우, 정보를 획득하는 것만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4.5 정보요구 주제별 정보탐색 장애 요인

정보탐색 장애 요인 가운데 언어 장벽은 여러 정보요구 주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건강 및 의료 정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정보,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에서는 각각 32건, 28건, 2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에서는 신뢰성 평가의 어려움이 22건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유학생들이 구직 과정에서 접하는 정보의 진위와 정확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은 모든 정보요구 주제에서 15건~20건으로 고르게 나타났으며, 취미 및 여가 정보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건강 및 의료, 취업 및 아르바이트, 금융 및 은행 정보가 각각 19건으로 뒤를

〈표 7〉 정보요구 주제별 탐색 결과, 만족도 및 신뢰도

구분		건강 및 의료 정보		학업 정보		생활 정보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		금융 및 은행 정보		대인관계 및 교류 정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정보		취미 및 여가 정보		뉴스 및 시사 정보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빈도	비율 (%)
탐색 결과	정보 미획득	24	21.4	9	8.0	19	17.0	50	44.6	51	45.5	41	36.6	30	26.8	27	24.1		
	정보 획득	88	78.6	103	92	93	83.0	62	55.4	61	54.5	71	63.4	82	73.2	85	75.9		
	계	112	100.0	112	100.0	112	100.0	112	100.0	112	100.0	112	100.0	112	100.0	112	100.0		
	매우 불만족	20	18.5	18	17.1	14	13.6	20	18.5	18	17.5	15	14.4	15	14.3	19	18.3	18	18.2
만족도	불만족	10	9.3	10	9.5	11	10.7	24	22.2	18	17.5	18	17.3	15	14.3	11	10.6	9	9.1
	보통	41	38	25	23.8	33	32	37	34.3	40	38.8	37	35.6	36	34.3	32	30.8	31	31.3
	만족	27	25	42	40	34	33	23	21.3	20	19.4	24	23.1	24	22.9	32	30.8	33	33.3
	매우 만족	10	9.3	10	9.5	11	10.7	4	3.7	7	6.8	10	9.6	15	14.3	10	9.6	8	8.1
	무응답	4	3.6	7	6.3	9	8	4	3.6	9	8	8	7.1	7	6.3	8	7.1	13	11.6
	계	112	100.0	112	100.0	112	100.0	112	100.0	112	100.0	112	100.0	112	100.0	112	100.0	112	100.0
신뢰도	매우 신뢰 못함	18	17.5	18	17.5	18	17.3	23	21.5	19	18.6	18	17.5	15	14.6	18	17.6	18	17.6
	신뢰 못함	8	7.8	9	8.7	9	8.7	17	15.9	12	11.8	11	10.7	10	9.7	10	9.8	9	8.8
	보통	44	42.7	23	22.3	36	34.6	41	38.3	46	45.1	46	44.7	37	35.9	37	36.3	33	32.4
	신뢰함	26	25.2	44	42.7	34	32.7	19	17.8	20	19.6	22	21.4	32	31.1	28	27.5	33	32.4
	매우 신뢰함	7	6.8	9	8.7	7	6.7	7	6.5	5	4.9	6	5.8	9	8.7	9	8.8	9	8.8
	무응답	9	8	9	8	8	7.1	5	4.5	10	8.9	9	8	9	8	10	8.9	10	8.9
계	112	100.0	112	100.0	112	100.0	112	100.0	112	100.0	112	100.0	112	100.0	112	100.0	112	100.0	

〈표 8〉 정보요구 주제별 정보탐색 장애 요인

정보요구 주제	언어 장벽	신뢰성 평가 어려움	콘텐츠 이해 어려움	한국 제도 및 절차 이해 부족	장애 요인 없음	기타
건강 및 의료 정보	32	11	17	19	18	4
학업 정보	21	11	14	16	33	8
생활 정보	18	14	18	16	30	2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	26	22	15	19	16	5
금융 및 은행 정보	19	16	17	19	24	4
대인관계 및 교류 정보	17	12	14	15	34	5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정보	28	15	18	18	23	4
취미 및 여가 정보	18	17	10	20	30	4
뉴스 및 시사 정보	25	13	11	17	26	5

이었다. 이는 한국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일상정보탐색 전반의 공통적인 장애요인을 보여준다. 반면, 대인관계 및 교류(34명), 학업(33건), 생활(30건) 정보에서는 정보탐색 장애 요인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표 8〉 참고).

차이는 뉴스 및 시사 정보, 취미 및 여가 정보, 건강 및 의료 정보, 대인관계 및 교류 정보, 생활 정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들 5개 주제 모두에서 여성의 평균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아, 여성 응답자가 해당 주제에서 획득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일상정보탐색 행태의 차이

4.6.1 성별에 따른 일상정보탐색 행태

■ 성별에 따른 주제별 정보에 대한 만족도 차이(독립표본 t-검정)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일상정보탐색 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남성과 여성 간 정보요구 주제별 정보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정보획득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주제별 유효 응답을 기준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만족도

■ 성별에 따른 SNS 활용 행태 차이(독립표본 t-검정, 교차분석)

성별에 따른 정보원 활용 행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NS 활용 빈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여성 집단의 SNS 평균 활용 빈도는 3.29회(SD=2.24)로, 남성 집단의 1.76회(SD=1.83) 약 1.9배 높았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t=-3.978$, $p<.001$),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보다 SNS를 정보원으로 더 빈번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간 SNS 활용의 차이는 구체적인 정보요구 주제인 생활 정보탐색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생활 정보탐색 시 성별에 따른 SNS 활용 여부

〈표 9〉 성별에 따른 정보요구 주제별 만족도 차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룹	N	M	SD	t	p
성별	뉴스 및 시사 정보에 대한 만족도	남성	48	2.65	1.26	-3.256	0.0016
		여성	51	3.41	1.06		
	취미 및 여가 정보에 대한 만족도	남성	51	2.67	1.37	-3.013	0.0033
		여성	53	3.38	1		
	건강 및 의료 정보에 대한 만족도	남성	52	2.69	1.29	-2.348	0.0208
		여성	56	3.23	1.08		
	대인관계 및 교류 정보에 대한 만족도	남성	50	2.7	1.3	-2.207	0.0298
		여성	54	3.2	1		
	생활 정보에 대한 만족도	남성	49	2.92	1.34	-2.021	0.0463
		여성	54	3.39	0.98		

주: M은 평균, SD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주제별 결측치로 인해 분석에 포함된 표본 수(N)는 상이함. p값은 양측검정 결과이며,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함.

〈표 10〉 성별에 따른 SNS 활용 빈도 차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룹	N	M	SD	t	p
성별	SNS 활용 빈도	남성	54	1.76	1.83	-3.978	0.00013
		여성	58	3.29	2.24		

주: SNS 활용 빈도는 응답자가 가장 자주 활용한다고 선택한 상위 3개의 정보원 중 SNS가 포함된 횟수를 나타냄.

〈표 11〉 성별에 따른 생활 정보탐색 시 SNS 활용 여부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룹	SNS 활용	SNS 미활용	SD	χ^2	p
성별	생활 정보탐색 시 SNS 활용 여부	남성	10 (18.5%)	44 (81.5%)	1.83	4.256	0.039
		여성	22 (37.9%)	36 (62.1%)	2.24		

를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여성 집단에서는 22명(37.9%)이 SNS를 활용한 반면, 남성 집단에서는 10명(18.5%)이 SNS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4.256$, $p = 0.039$).

4.6.2 한국체류기간에 따른 일상정보탐색 행태(일원분산분석)

■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에 대한 만족도 차이

한국체류기간에 따른 일상정보탐색 행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체류 기간을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 결과, 체류 기간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4.39$, $p < .05$). 전체 평균은 2.69점으로 보통 수준인 3점보다 낮았으나, 집단별 평균은 6개월 이내 2.31점, 7개월~12개월 2.61점, 13개월~18개월 3.05점으로 체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Tukey 사후검정 결과, 13개월~18개월 체류 집단의 만

〈표 12〉 한국체류기간에 따른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 만족도 차이

한국체류기간	N	M	SD	F	p	사후검정(Tukey)
6개월 이내	32	2.31	1	4.39	0.015*	13개월 이상 > 6개월 이내
7개월~12개월	33	2.61	1.2			
13개월~18개월	43	3.05	1.05			
전체	108	2.69	1.11			

주: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함.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를 기준으로 함.

족도($M=3.05$)는 6개월 이내 집단($M=2.31$)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7개월~12개월 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한국체류기간이 13개월~18개월인 유학생은 6개월 이내의 초기 정착단계 유학생보다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논의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착단계 네팔 유학생의 일상정보탐색 행태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네팔 유학생의 정보요구는 학업 정보(124점), 생활 정보(106점), 건강 및 의료 정보(96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취미 및 여가 정보(16점)와 뉴스 및 시사 정보(7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은경 외(2023)의 연구에서도 건강, 학업, 생활 관련 정보요구가 상위에 나타났으며, 건강 정보의 높은 비중을 코로나19 상황의 영향으로 해석한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Hertzum과 Hyldegård(2019)의 연구와 Chung과 Yoon(2015)의 연구에서도 학업 관련 정보는 일상생활 정보보다 빈

번하게 탐색되며 우선순위가 높은 정보요구로 나타났다. 반면, 윤정원(2022)의 연구에서는 모든 정착단계에서 일상생활 관련 정보요구가 학업 정보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의 특성과 조사 시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AI빅데이터융합전공과 AI경영전공 재학생으로, 전공 특성상 수업과 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업 관련 정보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설문조사가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루어져 주거, 교통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일상정보를 이미 상당 부분 획득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보 획득률, 만족도 및 신뢰도가 정보요구 주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학업 정보는 세 측면 모두에서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반면,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는 정보 획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만족도와 신뢰도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윤정원(2022)의 연구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 대상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정보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한국체류기간이 13개월~18개월인 네팔 유학생의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

보 만족도가 6개월 이내인 유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Yoon과 Chung(2017)은 정착이 진행될수록 유학생의 정보요구가 구체화되고 이용 가능한 정보원에 익숙해지면서 정보탐색 경험과 검색 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한국체류기간이 긴 집단의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정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된 정보탐색 경험과 정보환경에 대한 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정보요구 주제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원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학업, 건강 및 의료, 생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정보에서는 생성형 AI가 1순위 정보원으로 활용되었다. 생성형 AI의 학술적 활용과 관련하여, 이영아(2026)는 네팔 유학생의 78.41%가 생성형 AI를 학술 활동에 주 수회 이상 활용하며, 아이디어 생성, 개념 이해, 과제 수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생성형 AI 활용이 학업 영역에서 두드러진다고 밝힌 Lund et al.(2026)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한편, 취업 및 아르바이트, 금융 및 은행, 대인관계 및 교류 정보에서는 모바일 앱이 1순위 정보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 금융거래,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과 같이 특정 기능의 수행이나 즉각적인 정보 활용이 필요한 영역에서 목적에 특화된 모바일 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Lund et al.(2026)의 연구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해당 연구에서는 취업 정보의 경우 생성형 AI보다 검색엔진의 이용도와 관련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취업과 같이 구체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생성형 AI보다 해당 정보요구

에 보다 적합한 기존 디지털 정보원이 선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취업 및 아르바이트 정보에서는 가족 및 지인이 2순위로 나타나, 취업 정보탐색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원뿐만 아니라 현지 상황에 대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적 정보원도 함께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 관련 정보를 탐색할 때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한다고 보고한 윤정원(2022)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정보원 활용 양상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SNS를 더 빈번하게 활용하였으며, 뉴스 및 시사, 취미 및 여가, 건강 및 의료, 대인관계 및 교류, 생활 정보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소셜미디어와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보고한 황라헬(2019)의 연구와 유사하다.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 정보원은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만족도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Sin과 Kim(2013)은 SNS와 같은 네트워크 기반 정보원이 상호작용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맞춤형 일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윤정원(2022)도 이용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정보원이 구체적인 정보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넷째, 네팔 유학생의 주요 정보탐색 기기는 스마트폰(74.5%), 노트북(2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트북/넷북(62%)의 이용 비율이 스마트폰(20%)보다 높았던 Chung과 Yoon(2015)의 연구와는 대조적이나, 스마트폰(59.0%)의 이용 비율이 노트북(29.9%)보다 높았던 정은경 외(2023)의 연구와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응답자 기준으로는 112명 중 108명(96.4%)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정보탐색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네팔 유학생들은 정보탐색 언어로 네팔어(13.7%)나 한국어(11.5%)보다 영어(74.8%)를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기반 네팔 교육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영어 활용에 능숙한 이들의 언어적 배경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영아, 2026). 그러나 한국어로만 정보가 제공되거나 영어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언어적 제약이 주요 정보탐색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체류국 언어가 요구되어 정보탐색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밝힌 Hertzum과 Hyldegård(201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영어 활용 능력이 높더라도 체류국 언어 중심의 정보환경에서는 정보 접근이 크게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탐색 지원은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정보요구가 높은 영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상호 작용형 정보서비스, 언어적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취업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실무적 정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취업 및 아르바이트, 금융 및 은행 정보는 정보 획득률과 만족도,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과 유학생 지원기관은 비자, 근로조건, 금융절차 등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유학생의 주요 관심

사인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착단계별 정보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진로 준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SNS와 인적 정보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형 정보 지원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여성 유학생은 남성 유학생보다 SNS를 더 빈번하게 활용하였으며, 여러 일상정보 주제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획득이 이용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의 신뢰성과 적합성을 높이고, 정보 만족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과 유학생 지원 부서에서는 SNS 기반 실시간 질의응답 채널, 선후배 간 정보 멘토링 프로그램, 전담 인력을 통한 맞춤형 상담 등 다양한 양방향 소통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과 관련 기관은 취업, 금융, 의료, 행정 등 주요 생활정보를 한국어와 영어로 병행 제공하고, 영어 안내 및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튜브가 다양한 정보요구 영역에서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된 점을 고려하여 자막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는 모국어와 다른 언어 환경에서 유튜브가 유학생의 언어와 문화의 이해와 적응을 지원할 수 있다는 Kim과 Kim(2021)의 연구와도 부합한다.

6.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체류 18개월 이내 정착단계

네팔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정보탐색의 특성, 정보요구 주제별 일상정보탐색 행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정보요구 주제에 따라 선호 정보원과 정보 획득률, 만족도, 신뢰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일상정보탐색은 주로 영어를 사용하며, 생성형 AI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주제별로는 학업 정보의 정보 획득률, 만족도, 신뢰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취업과 금융 관련 정보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SNS를 더 많이 활용하였으며, 뉴스, 취미, 건강, 대인관계, 생활 관련 정보에서 남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국체류기간별로는 13개월~18개월의 집단이 6개월 이내의 집단보다 취업 관련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는 단일 대학에 재학 중인 국내 체류 18개월 이내의 정착단계 네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전체

네팔 유학생이나 다른 국적의 유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또한 설문조사에 기반한 양적 연구의 특성상, 유학생들의 실제 정보탐색 과정과 정보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상황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이나 관찰일지법 등 질적 연구를 병행하고, 체류기간의 경과에 따른 정보요구와 정보탐색 행태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정착단계 네팔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정보탐색 행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네팔 유학생의 언어적 특성과 생성형 AI를 포함한 최신 정보원 활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정보탐색 행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나아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과 관련 기관의 정보 지원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나현 (2023). 외국인 이공계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원 유학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학생의 어려움과 학업 후 진로계획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법무부 (2026). 법무부_47(외국인 유학생) 월별 외국인 유학생 국적(지역)별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100039/fileData.do>
- 윤정원 (2022).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단계에 따른 정보추구행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1), 27-45. <https://doi.org/10.4275/KSLIS.2022.56.1.027>
- 이영아 (2026). 외국인 유학생의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 A대학 네팔 유학생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43(1), 261-280. <https://doi.org/10.3743/KOSIM.2026.43.1.261>
- 이윤희, Xu Nuo, 홍소은, 이은별, 양은주 (2022).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 질적 메타요약.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9(2), 125-158.
<https://doi.org/10.16983/KJSP.2022.19.2.125>
- 정은경, 구하린, 윤정원 (2023).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행위.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6(2), 75-96. <https://doi.org/10.23089/JDCA.2023.6.2.004>
- 황라헬 (2019).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일상정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Bukhari, S., Hamid, S., Ravana, S. D., & Ijab, M. T. (2018). Modelling the information-seeking behaviou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ir use of social media in Malaysia. Information Research, 23(4), Paper 804. <https://informationr.net/ir/23-4/paper804.html>
- Chung, E. & Yoon, J. (2015). An exploratory analysi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formation needs and uses.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39(1), 36-59.
<https://doi.org/10.1353/ils.2015.0000>
- Hertzum, M. & Hyldegård, J. S. (2019). Information seeking abroad: an everyday-life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Documentation, 75(6), 1298-1316.
<https://doi.org/10.1108/JD-11-2018-0183>
- Kim, S. & Kim, H. C. (2021). The benefits of YouTube in learn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Korean freshman students'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in the US. Sustainability, 13(13), 7365. <https://doi.org/10.3390/su13137365>
- Lund, B. D., Teel, Z. A., Mohammed, Y., Jagathpally, A., & Wang, T. (2026).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information seeking: A comparative exploration of AI chatbots, search engines, and library resources as information source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https://doi.org/10.1177/09610006261438484>
- Ma, H., You, Q., Jin, Z., Liu, X., & Chen, Z. (2025). Exploring the role of generative AI in international students' sociocultural adaptation: A cognitive-affective model. Frontiers in Artificial Intelligence, 8, Article 1615113. <https://doi.org/10.3389/frai.2025.1615113>
- Oh, C. Y. & Butler, B. (2019). Small worlds in a distant land: International newcomer students' local information behaviors in unfamiliar environment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70(10), 1060-1073. <https://doi.org/10.1002/asi.24185>
- Oh, C. Y. & Butler, B. S. (2016). Newcomers from the other side of the globe: International students' local information seeking during adjustment.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3(1), 1-6.
<https://doi.org/10.1002/pra2.2016.14505301118>
- Oh, C. Y., Butler, B. S., & Lee, M. (2014). Information behavior of international students settling

- in an unfamiliar geo-spatial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1(1), 1-11. <https://doi.org/10.1002/meet.2014.14505101068>
- Savolainen, R. (1995).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Approaching information seeking in the context of “way of lif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7(3), 259-294. [https://doi.org/10.1016/0740-8188\(95\)90048-9](https://doi.org/10.1016/0740-8188(95)90048-9)
- Sin, S. C. J. & Kim, K. S. (2013). International students’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The informational value of social networking site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5(2), 107-116. <https://doi.org/10.1016/j.lisr.2012.11.006>
- Sin, S. C. J. & Kim, K. S. (2018). How are we the same or different: Information needs and barrier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ent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4(6), 712-723. <https://doi.org/10.1016/j.jacalib.2018.10.005>
- Yoon, J. & Chung, E. (2017). International students’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behaviors throughout the settlement stages. *Libri*, 67(2), 119-128. <https://doi.org/10.1515/libri-2016-004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ung, EunKyung, Gu, Halin, & Yoon, JungWon (2023). International students’ everyday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in Korea. *Journal of D-Culture Archives*, 6(2), 75-96. <https://doi.org/10.23089/JDCA.2023.6.2.004>
- Hwang, Rachel (2019). A Study on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International Students Based o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cculturation Types.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Kim, Nahyun (2023). A Case Study on the Academic Experience of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 Students in Korean Universities: Focusing on the Students’ Difficulties and Career Plans after Graduation.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Yoonhee, Xu, Nuo, Hong, Soeun, Lee, Eunbyeol, & Yang, Eunjo (2022). A qualitative meta-summary of college maladjustment factors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9(2), 125-158. <https://doi.org/10.16983/KJSP.2022.19.2.125>
- Lee, Young A (2026). Generative AI use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Focusing on Nepali students at University 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3(1), 261-280.

<https://doi.org/10.3743/KOSIM.2026.43.1.261>

Ministry of Justice (2026). Monthly statistics on international students by nationality (region):

Ministry of Justice_47 (International Students). Public Data Portal. Available:

<https://www.data.go.kr/data/15100039/fileData.do>

Yoon, JungWon (2022).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throughout the settlement stage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1), 27-45. <https://doi.org/10.4275/KSLIS.2022.56.1.027>

